고대문화 영상으로 실감나게

국립나주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입구부터 복도·실감 영상실까지 3D 홀로그램 미디어아트
금동신발·옥구슬·독널…스토리텔링 역사파노라마 펼쳐져

진입통로인 복도에 들어서면 마치 고분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든다. 얼마 후 전면에 금동신발(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문양을 모티브로 한 영상이 대형 홀로그램 스크린에 투사된다.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금동신발은 입체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최근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하수)의 실감콘텐츠 체험관은 미디어아트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를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1500연 전 고대의 시간 속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준다.

나주박물관 1층에 마련된 실감콘텐츠 체험관은 기존 강당으로 사용되던 약 100평의 공간을 새롭게 구성했다. 나주박물관 브랜드인 '영산강유역 독널과 장례문화'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해 고대 문화를 다채롭게 보여준다.

실감콘텐츠 체험관은 모두 입구, 복도, 실감영상실로 구성돼있다. 먼저 입구에 들어서면 55인치 멀티비전 8대가 관람객을 맞는다. 무빙포스터가 눈에 띄는데, 이는 신촌리 9호분과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신발 문양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실감영상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늠할 수 있다.

이어 복도에 진입하면 정면에서 펼쳐지는 홀로그램을 만난다. 3D 프린팅 효과로 시시각각 변모하는 금동신발의 용문양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본 무대인 실감영상실. 이곳은 오프닝 영상, '고분, 별이 되다', '꿈의 문양, 빛으로 새기다', 실감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스토리텔링과 애니메이션에 따라 고대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친다. 폭 35m, 높이 3m의 벽면과 바닥, 기둥을 스크린으로 하는 프로젝션 맵핑 기술과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체험형 인터렉션 기술이 적용됐다.

먼저 오프닝 영상은 고대 역사와 함께 흘러온 영산강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영상강의 물줄기와 고분이 다양한 '선'의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선에 따라 다양한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어 '고분, 별이 되다'에서는 영산강유역 고분문화를 보여주는 신촌리 9호분 축조과정과 매장의례를 볼 수 있다.

반남고분군의 중심 고분인 신촌리 9호분은 주변의 낮은 구릉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다. 10여기의 독널 무덤이 확인됐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 매장자들이 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영상은 스토리 전개를 위해 '별'을 매개체로 활용했다. 별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시공간이 시시각각으로 펼쳐진다. 아득한 우주의 한 점에서 영산강유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선조들의 역사,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다 하늘의 별이 된 선조들의 모습이 전개된다.

흥미로운 부분은 죽은 사람을 위해 독널을 제작하고 영산강을 통해 무덤으로 이동하는 독널의 모습이다. 시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는 장면은 환상적이며 신화적이다.

'꿈의 문양, 빛으로 새기다'는 1500여 년 전 나주일대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문양이 주제다. 화려하고 정교한 문양이 임펙트 있는 영상으로 펼쳐진다.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당대 최고 금속공예기법을 보여주는데 다양한 문양은 현세의 이상이 투영돼 있다. 지금까지 나주지역 일대에서는 모두 3점의 금동신발이 발굴됐다.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삼국시대 신발 가운데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영상은 물-땅-하늘로 공간을 이동하며 각각에 해당하는 문양들을 소개한다. 특히 정촌고분 신발의 주 문양인 용의 승천과 메시지(하늘 문이 열리고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니 새로운 세계에서도 평안하기를)가 입체적으로 이어진다. 수만 개의 별이 폭죽처럼 떨어지는 영상은 오래도록 여운을 준다.

마지막으로 실감체험은 모두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꿈을 배달하는 물고기들이 관람객을 따라가는 '꿈의 강을 따라', 금동신발 도깨비문양을 밟으면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금빛 도깨비의 보따리', 용문양 조각을 찾는 '꿈의 조각을 찾아라'가 그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실감영상실에서는 영산강유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선조들의 빛나는 삶을 미디어아트로 만날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이신자 작 '꿈'

생활 속 아름다움, 일상의 풍경

한울회 초대전, 5월8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하경완)은 지역 작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인과 그룹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초대전을 개최한다.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견·원로작가 그룹인 한울회(회장 이신자) 초대전이 오는 5월8일까지 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시각적 다양성과 일상의 '공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모두 1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15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일상에서 얻은 감수성과 삶의 표정을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작은 생활 속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풍경, 이상적 세계, 조형적 실험, 전통적 미감 등을 담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등 다양한 작품 23점이다.

김기수·김은자·김재일·김충곤·나지웅·양정숙·이인호·이정래 작가는 무등산의 설경, 단풍이 물든 가을 풍경 등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 경관을 화폭에 담았다. 김종욱·김필수·노의웅·이신자·양원철 작가는 강렬한 색채 대비가 돋보이는 작품과 한국적 소재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밖에 양지아·이영실·이현숙·장지환·정해은 작가는 현대적인 감각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전시한다.

2008년 창립한 '한울회'는 지역 중견·원로작가들로 구성됐다. '한울'은 '하나의 울타리'라는 의미로 작가 간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예술을 향한 소박하고 순수한 태도를 추구하는 모임이다. 회원들은 매년 정기전과 타지역 교류전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관람시간은 공연이 있는 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공연이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철로 꽃을 그리다

김광호 기획초대전, 20일~5월22일 우제길미술관

'철재로 조각한 사군자.'

문인화의 주된 소재로 사용된 '사군자'는 한지에 먹으로 그린 작품이 일반적이다. 농담의 멋을 살린 날렵한 필치가 단아한 매력을 선사한다.

김광호 작가의 '사군자'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평면이 아닌, 조각으로 사군자를 표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미로운데, 그 소재가 '철'이라는 점, '그림자'가 또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사군자 조각'으로 알려진 김광호 작가 초대전 '철로 꽃을 그리다'전이 오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린다. 최근 서울 금호미술관과 두남아트홀에서 '철로 꽃을 그리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 큰 호응을 얻었던 김 작가의 27번째 개인전이다.

'죽(竹)-겨울바람', '매화-봄바람' 등의 작품은 철재로 조각한 대나무와 매화, 그리고 돌조각이 어우러져 색다른 조형미를 선보인다. 여기에 조각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자연스레 평면 화면 위에 머물면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낸다. 특히 가로 4m가량의 매화를 조각한 작품은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워 압도감을 선사한다.

경북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 작가는 한국조각가협회, 한국기초조형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구조각가협회장, 대구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죽(竹) - 겨울바람'

김 작가는 "사물들은 공간을 함유한 입체다. 사군자의 조각적 표현은 물성과 빛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그림자 형상을 공간에 배치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카페 필로소피아 '중장년 희망 워크숍'

18일~9월24일 김냇과…최혜영 전남대 교수 첫 강의

카페 필로소피아(대표 성진기)가 주최하는 '중장년을 위한 희망 워크숍'이 18일부터 오는 9월24일까지 모두 11차례 열린다.

'중장년의 머리와 손이 우리 사회의 미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매월 3·4주 월요일 오후 7시 광주 문화공원 김냇과(동구 구성로 204번길 13)에서 열린다.

18일 열리는 첫 강의는 '그리스인에게 배우는 인생 지혜'를 주제로 최혜영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25일에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의 '삶의 지혜, 다산에게 묻다' 강연이 펼쳐진다.

5월에는 '문학으로 행복찾기'(문순태 작가), '산사에서 들려오는 깨달음의 소리'(일귀 스님·송광사 승가대학), 6월에는 '성숙한 삶에서 찾는 우정의 가치'(안동교 해동문헌연수소장), '말에서 찾는 중년의 매력'(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등이 열린다. 그밖에 성진기, 고영란(전남도립대 겸임교수), 김포천(전 광주 MBC사장), 최혜경(조선이공대 교수)씨가 '삶과 죽음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 '눈으로 이해하는 전통음악', '광주가 예향인가', '차와 사람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석무 이사장

9월24일 열리는 마지막 강의는 완도 수목원에서 박성수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장을 초청, '중장년의 사회적 기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펼쳐진다. 문의 010-9603-3244.

/김미은 기자 mekim@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